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한농연중앙연합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 전개!

한농연은 지난 9월 13일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한농연의 국정감사 요구사항」(이하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각 정당 및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국정감사 요구사항은 농가부채 문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한·중 마늘협상에 대한 문제, 농어촌복지특별법 등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17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있다. 또한 9월 25일부터 시작되는 농업관련 기관 국정감사에 국정감사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고, 농업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였다.

※ 한농연의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 녹취록은 한농연 홈페이지(www.kaff.or.kr)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66,068명 서명!

한농연은 지난 3월 농촌복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지난 상반기 동안 △전국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문 부착 △현수막달기 운동전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냄으로써 전반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등 일말의 성과를 내었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7월 하반기를 맞아 오는 “9월 정기국회 내 입법추진” 및 “특별법의 연내제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업무연락 제96호)부터 9월 10일까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국 농협조직(농협 각 도본부 및 시·군지부 등과 협력)과 함께 공동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약 2달여간 진행되어 온 “100만인 서명운동”은 현재 개최 중인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추진을 하는데 자료로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이는 곧 농촌복지법 제정에 대한 ‘한농연 12만회원 열망’의 결실인 셈이며, 농촌복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힘이 될 것이다.

●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운동 진행경과

한농연은 지난 7월 22일~9월 7일까지 각 도·시·군·읍·면·동지역 회원, 농민 및 도서지역 시민 대상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이번 운동은 △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 분위기 확산 △하반기 정기국회 내 입법추진 △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연내제정이 목적

이다. 보다 구체적인 '특별법안 마련 및 제정참여 활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특별법의 연내제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7월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입법추진 대책반』을 만들어 그 안에 법안작성팀과 입법추진운동팀을 두어 운영했다. 한농연중앙연합회 실무자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농협중앙회 관계자로 구성된 법안작성팀은 구체적인 법안내용의 심의와 함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입법추진운동팀은 한농연조직과 농협조직이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을 공동추진을 전개해, 아래와 같이 전국적으로 약 4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 100만인 서명운동 중간집계 현황 (10월 1일 현재)

지 역	서명인 (명)	총 회원(명)
경 기	4,086	10,098
강 원	2,684	6,154
충 북	5,276	6,490
충 남	1,538	12,400
전 북	1,972	9,714
전 남	1,654	14,119
경 북	16,056	16,286
경 남	6,674	11,941
제 주	26,000	1,517
1특 6광역	128	3,118
계	66,068	91,837

이어, 한농연중앙연합회는 100만인 서명운동 집계와 국회의원 서명운동이 완료될 10월에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입법 및 주요골자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 기간 내에 입법청원 및 연내 법제정 관철을 위한 후속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가올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농촌복지특별법'을 대선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충북도연합회, 장승제막식 개최

한농연충북도연합회(회장 이흥세)는 지난 9월 6일 농권실현과 식량안보를 기원하는 장승제막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제8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중 '장승세우기' 행사에서 조각한 것으로, '농권실현대장

군', '식량안보대장군', '통일농업대장군' 등 3개의 장승을 충북농업인회관 앞 잔디밭에 세웠으며, 장승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표석도 함께 세웠다.

충북도연합회 이홍세 회장은 “계속되는 재해와 농업여건의 악화로 농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농민의 권익을 찾자는 차원에서 이번 제막식을 갖게 되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 지난 9월 6일 한여농 충북도연합회 도대회 개최식후 진행된 장승제막식.

전북도연합회, '복지 특별법' 추석 기간 회원 1인 20인 이상 서명운동 전개

한농연 전북도연합회(회장 김대욱)는 추석을 맞아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회원 1인 20인 이상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전북도연합회는 각 시·군연합회로 공문을 보내 이번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번 서명운동은 고향을 방문하는 가족, 친지, 선후배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고향과 농촌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농촌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산시연합회, 경산농민대회 개최

한농연 경산시연합회(회장 이일권)는 9월 9일 오전 10시 농협시지부 앞에서 농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입개방저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경산농민대회”를 경산시농민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집회를 주관한 경산시연합회와 경산시농민회 뿐만 아니라 한여농, 한우협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경산복숭아조합, 여성농민회, 경산축협 등의 관내 단체들이 참가하였다.

이일권 경산시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한·중 마늘협상 이면합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강행, 94년 UR협상 과정에서의 이면합의까지 현정권은 국민과 농민을 속이고 강대국의 볼모가 돼 민족농업을 팔아 먹고 있다”며 “정부는 농가부채특별법을 개정하고 농업재해보상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수입 농축산물로 인해 절망의 늪에 빠져있다'며 '정부가 농업 자체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또한, '농민 스스로의 단결된 힘과 투쟁으로 우리의 생존을 지키겠다'며, '무능한 정부'와 '집권야당이라는 한나라당'에 대해 강한 투쟁 의지를 보여주었다.

순창군연합회, 순창농민 쫄기대회 개최

한농연 순창군연합회(회장 조계칠)는 9월 10일 순창읍복지회관 앞 광장에서 700여 농민이 참가한 가운데 "WTO 쌀수입반대와 쌀값보장을 위한 순창농민 쫄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집회는 '우리 쌀 지키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조계칠)' 주관으로, 이 운동본부는 한농연,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이장단, 생활개선회, 한우회, 낙우회, 양동회, 4-H연맹, 4-H회, 흑비회 등 관내 11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대신해서 "쌀값보장·쌀개방 반대를 위한 순창지역 이장단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을 통해 '쌀은 민족의 생명이요, 뿌리'이며, '쌀농사는 순창 농업소득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04년 WTO 쌀재협상을 앞두고 쌀시장 완전개방을 기정 사실화'하려는데 있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였다.

이날 집회는 수입개방을 강요하는 미국에 반대하는 의미로 미국 국기 화형식을 가졌으며, 터미널 4거리까지 가두행진 후 정리집회 갖고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되었다.



▲ 추수철을 앞두고 쌀값보장과 쌀수입 반대 집회가 각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은 순창군 농민대회이후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는 대회 참가자들.

임실군연합회, 농민대회 개최

한농연 임실군연합회(회장 박일성)는 9월 10일 오전 9시 관촌시장과 오수 원동산에서 농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수입반대와 가격보장을 위한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집회는 임실군농민단체협의회(회장 박일성, 한농연임실군연합회장)가 주관하였다. 한편 집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콤팩트와 트랙터 등을 동원하여 군청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였으며, 계속되는 대치상황 속에서 집회참가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며, 농성을 진행하였다.

장수군연합회, 쌀값보장요구 집회 개최

한농연 장수군연합회(회장대행 장충열)는 장수군농민회, 이장단협의회와 공동으로 9월 13일 오후 2시 장수군청 광장에서 농민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쌀수입반대와 쌀값보장을 위한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집회는 최용득 장수군수와 농민대표가 협상을 가져 ‘논농업직접직불제 지원액에 대한 50%를 지원한다’는 성과를 얻어내었다.

경주시연합회, 협동조합 교육 실시

한농연 경주시연합회(회장 임천택)는 9월 11일 2시 『협동조합 발전과 개혁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경주시연합회 사무실에서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11월 말에 있을 농협 총회에 맞춰, 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강연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조합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장종의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이 맡아 진행되었다.

장종의 소장의 이날 강연은 ‘농업경영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 ‘시장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농민의 조직’, ‘농협사업참여 확대방안’, ‘조합 개혁을 위한 조합원·대의원·임원의 역할과 자세’ 등의 원론적인 내용과 함께, ‘지역농협의 사업계획,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조합 예산결산서 분석방법과 경영개혁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었다. 2시부터 시작된 교육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늦은 10시까지 진행되었다.



그 밖의 농업계 소식

한·중 마늘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한농연과 전농, 공동 법정투쟁을 전개하다.

한농연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마늘 주산단지 소속 회원 7명은, 9월 13일 오후 1시 새벽법률사무소 김태욱 변호사를 통해, 한·중 마늘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정식 청구하였다.

이번 한·중 마늘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생산자의 피해조사 신청권을 침해한 정부의 위헌행위와 무분별한 개방농정을 중단시킴으로써 농민생존권을 수호하고자 이뤄진 것이다.

또한 7월 중순부터 이어진 전국 농민들의 즐긴 투쟁 과정 속에서, 한농연과 전농이 한·중 마늘 협정 무효화와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해 공동 법정투쟁의 닳을 올렸다는 데 이번 헌법소원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7월 중순 이후 전국 동시다발 농민집회를 통해 집중 제기된 한·중 마늘 협정 문제는, 9월 6일 전남 서남부채소농협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행정소송과 맞물려, 본격적인 대정부 법정투쟁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 위반과 권리 침해

- (1)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2000. 7. 31 체결한 양국간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및 그 부속서 중, '2003. 1. 1부터 한국의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국내·국제법을 위반한 정부의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방침은 헌법 위반임
- (2) 외교통상부가 제1항의 '2003. 1. 1부터 한국의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부분을 국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부작용은 헌법에 위반된다.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관련 합의문 조항을 숨기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정부의 직무유기는 헌법 위반임

또한, 국민과 400만 농민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 (1) 헌법 제1조, 제10조, 제34조 제1항 알 권리
- (2) 헌법 제6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3조 적법절차의 원칙
- (3)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 (4)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 (5) 헌법 제23조 제5항 재산권
- (6) 헌법 제40조, 제66조 제4항 권력분립의 원칙
- (7) 헌법 제123조 제1항, 제4항, 제5항 농어민의 이익보호

청구인 명단

김길자(전남 무안군 현경면), 김선환(경북 의성군 금성면), 문석희(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백영선(전남 고흥군 과역면), 안동우(제주 북제주군 구좌읍), 여동찬(경남 남해군 서면), 이무수(경남 창원군 대합면)



▲ 2000년 한·중 마늘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보복조치에 항의해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있는 한농연 회원들.

농특위, 쌀소득보전제 · 생산조정제 도입 등 원점서 재논의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이하 농특위)는 지난 9월 18일,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방안을 비롯해 농어촌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대책, 농어촌 복지제도 개선대책(안)을 안건으로 본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지난 9월 11일, 이미 같은 안건을 논의한 농특위 상임위원회의 논의 사항에 대해 심의 · 의결을 하는 자리인 본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쌀소득보전직불제(안)과 생산조정제 도입 등 쌀문제대책안에 대해 '백지화'에 입을 모았다.

먼저, 이날 본회의를 통해 최종 논의된 소득보전직불제(안)은 연구 용역결과로 발표된 3가지 방안¹⁾ 중 제3안인 "소득보전직불을 포함한 명목조수입 기준으로 하락분의 80% 보전방식"이 상임위 다수의 의견으로 채택되어 상정되었으며, 한농연이 주장한 "소득보전직불을 포함한 실질조수입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70% 보전

[표 1]

●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방안

- 대상농지
 - 기준연도(1998~2000)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중 시행연도의 벼 경작지를 기준으로 하되, 농가당 상한 면적제한을 두지 않으며, 하한면적은 0.1ha
- 대상 농업인 : 시행연도에 대상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함.
- 지급 기준 : 상기의 세가지 안
- 보전기준연도
 - 이전 5년의 기준조수입을 기준으로 최고 · 최저년도치를 제외한 3년으로 하며, 시행 첫해에는 전년 기준조수입, 2~4년차에는 각각 이전 2~4년 기준조수입 평균
- 지급액
 - 연구팀이 제시한 안을 수정하여 기준조수입은 약정수매량을 제외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함.
 - 지급액 = 조수입 하락분 × 보전비율
 - 조수입 하락분 = (보전기준년도 기준가격 - 당해연도 기준가격) × (생산량 - 약정수매량)
- 약정 및 지급시기
 - 약정은 4월, 지급시기는 주판매기(10월 ~ 익년 1월) 가격을 기준하여 익년 3월에 지급하기로 하되, 금년산에 특례를 둠
- 대상농업인 부담금
 - 기준조수입의 0.5%수준을 부담
- 재원조성 및 운영방식
 - 매년 가격하락율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 전망이 어려우므로 일반회계보다는 기금 형태로 운용하도록

1) 제1안 : 소득보전직불을 포함한 실질조수입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80%보전
 제2안 :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지 않은 명목조수입 기준으로 하락분의 80%보전
 제3안 : 소득보전직불을 포함한 명목조수입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80%보전

(안)”과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주장한 ‘정부보조금은 포함하지 않고 명목조수입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70% 보전(안)은 첨부되어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본회의 위원인 박홍수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아래 표1과 같이 제시된 쌀소득보전직불제(안)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로 지급기준은 다수안으로 채택된 제3안을 폐기해야 하고, 최소한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실질조수입을 기준으로 한 70%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보전기준연도에서 시행 첫해를 전년 기준조수입으로 설정한 것은 이미 지난해 8%이상 떨어진 시가 쌀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상 농업인 부담금을 조수입의 0.5%를 부담시키는 것은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시행에 따른 농가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소득보전직불제에 연계하지 않고, 전작(轉作)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을 농림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의(표2 참조)하여 상정된 ‘생산조정제(안)’에 대해, 쌀 및 식량자급목표와 자급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도 않은 채 막연한 시장논리에 근거한 ‘생산조정 도입’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더구나, 이날 상정된 정부의 ‘생산조정제(안)’은 구체적인 대책은커녕, WTO가 허용하는 허용보조 대상(green box)이나, 감축대상(amber box)이나에 대해서도 혼선을 가져왔으며, 참가 위원들의 제도시행에 대한 효율성 의심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박홍수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한 농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앞서 서술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쌀소득보전직불제(안)과 생산조정제(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해, 결과적으로 ‘백지화’되고 말았다.

그러나 농특위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를 향후에 어떻게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농림부는 농특위의 논의와 별도로 예산부처와 협의를 통해 명목소득 기준 하락분의 70%를 보전하는 소득보전직불제로 내년도 예산 110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다.

[표 2]

● 생산조정제와 관련한 양부처간 협의과정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Green Box Subsidy) 생산조정제(2003년 3만 ha)와 관련하여 △쌀의 과잉생산 일부를 작은 비용으로 조기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며, △가격하락에 따른 감산효과가 적은 소득보전직불제를 보완하는 효과 △WTO 농업협정문상 “효과적인 생산제한조치”에 대한 명시적 프로그램으로서 2004년 쌀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농림부 의견에 기획예산처와 의견 합의

한농연 수해복구 지원 활동 전국 현황

**한농연, 전체 7천5백여만원의 성금 전달,
1천1백여명이 현장복구 활동 나서!!**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한농연의 하나된 모습을 통해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다.

각 도별로 진행된 지원활동 현황을 정리해 본다.

중앙연합회

사무총국 임직원 15명은 지난 9월 6일 강릉시 사천면에서 복구활동을 다녀왔다. 수해 농가에 의연품을 전달하는 한편, 가옥과 500평의 하우스에 피해를 입은 최영수 회원의 농가를 방문하여 쓰러진 버섯목을 세우고, 하우스로 새어 나온 기름제거와 주변을 정리했다.

또한, 회원 1인 100원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1천만원을 성금을 모았으며, 이와는 별도로 1천만원을 마련하여 수해지역에 전달하였다.

경기도

경기도연합회는 9월 4일과 6일 강릉과 김천에 라면 100box, 9월 4일 함양으로 물 100box를 보냈다. 또한 9월 9일 영동에 낫과 삼 각 100자루를 보냈으며, 도연합회 직원들도 1십만원의 모금을 하였다.

또한, 경기도연합회는 시·군연합회에 모금운동을 제안하였으며, 다음은 각 시군연합회의 모금내역을 소개한다.

파주 435만원, 포천 130만원(군청에 1백만원), 여주 60만원, 남양주 80만원(시청에 30만원), 성남 23만원(이중 20만원은 시청에 기부), 고양 40만원, 의왕 23만원, 평택 20만원, 이천 20만원, 안성 20만원, 화성 18만8천원, 양평 10만8천원, 과천 10만원, 광명 10만원, 하남 10만원, 수원 10만원, 김포 10만원, 용인 10만원, 가평 10만원, 광주10만원, 양주 6만9천6백원, 안양 5만원, 군포 5만원, 구리 5만원, 부천 1만원, 시흥 1만원 등 총 1천1백만원이 넘는 모금을 하였다.

또한 각 시·군연합회 자체적으로 현장복구활동, 구호품 전달 등이 진행되었다.

연천군연합회는 8월에 김해시 한림면으로 회원 40여명이 2박3일간 현장복구활동을 다녀왔으며, 또한 연천의 사회단체들과 연합해 7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다. 파주시연합회는 양양군 소양면과 강릉시, 동해시에서 64명의 회원들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복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쌀 약 700kg과 물품을 지원하였다. 용인시연합회는 9월 9일 양양군 서면에서 회원 40여명이 복구

활동을 하였으며, 쌀 50포대(10kg)를 지원하였다. 포천군연합회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김해시에서 회원 20여명이 현장활동을 다녀왔다. 남양주시연합회는 9월 30, 31일에 회원 20여명이 복구활동을 하였으며, 가평군연합회도 9월 17, 18일에 강원 고성군으로 회원 30여명이 복구활동과 함께 포크레인 1대와 포도 100box를 지원하였다. 김포시연합회는 9월 27일 강원 고성군으로 30여명이 복구활동을 하였으며, 500만원 어치의 쌀을 지원하였다. 한편, 구제역 피해농가들은 9월 4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56만3천원을 모금해 김천시로 지원하였다.

강원도

많은 피해를 입은 강원도에서도 복구지원활동은 활발히 진행되었다.

강원도연합회는 회장을 비롯한 도임원들이 2백만원을 모금하여 KBS와 MBC에 각각 1백만원을 기탁하였다. 피해가 적은 강원도내 시·군연합회에서 피해가 심한 지역으로 구호활동을 진행하였다.

양구군연합회는 강릉시에서 9월 6일 80여명, 9월 13일 50여명이 복구활동을 펼치고 구호품을 전달했다. 홍천군연합회는 양양군에서 9월 9일 회원 45명이 복구활동과 물품을 지원했고, 철원군연합회는 9월 9일 양양군으로 40여명이 복구활동을 다녀왔으며 구호품도 전달했다. 화천군연합회는 정선에서 9월 14일 40여명의 회원이 복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인제군연합회는 양양군에서 9월 9일 회원 35명이 복구활동과 구호품을 전달하였다. 춘천시연합회는 강릉시에서 9월 7일 회원 15명이 복구활동을 했으며, 평창군연합회는



▲ 지난 9월 6일 한농연 중앙연합회 임직원들은 강릉시 사천면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벌였다.

군임원 등 10여명이 관내 도암면에서 복구활동을 다녀왔다. 횡성군연합회도 성금 90만원과 140여만원 어치의 물품을 횡성군청에 전달하였다.

충북도

충북도연합회는 시·군연합회와 함께 9월 13일 150여명이 영동군으로 복구활동을 다녀왔으며, 보은군연합회는 9월 11일 영동 황간에서 20여명이 복구활동을 하였고, 포크레인(11일부터 15일까지)과 트럭 3대(11일)를 지원하였으며, 라면 등 물품을 전달하였다. 괴산군 감물면회는 9월 10일 회원 20여명이 영동군 매곡면에서 복구활동과 쌀 180kg을 지원하였고, 증평출장소연합회도 관내 회원 1인에게 50만원, 진천군에 50만원, 청주방송에 10만원을 기탁했다.

충남도

충남도연합회는 9월 9일 영동군에 생수 100box를 전달했으며, 당진군연합회는 9월 9일 100여명이 영동군으로 복구활동을 다녀왔으며, 쌀 20kg 50포대를 지원하였다. 서산시연합회는 9월 9일 45만원 상당의 김치와 쌀 20kg 72포대

를 전달하였다. 예산군연합회는 9월 18일 지역 방송사에 3백만원, 부여군연합회도 KBS에 20만원을 기탁하였다.

전북도

전북도연합회는 무주와 남원에 각 5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남원시연합회는 관내 수지·보절·아영면에 각 10만원, 운봉·인원면에 각 20만원, 산내면에 4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무주군연합회도 9월 4일 관내 설천·안성면에 각 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무풍면에 라면 10box, 식수 3box와 10만원을 전달하였다.

전남도

영암군연합회는 회원 45명과 함께 9월 18일 산청군으로 복구활동을 하였으며, 김치 1,825kg, 쌀 600kg, 된장 250kg을 지원하였다. 장성군연합회는 8월 20일 함안군 범수면에 라면 30box를 전달하였으며, 광양시연합회도 관내 피해지역에 50만원을 지원하였다.

경북도

경북도연합회는 시·군연합회와 함께 모금운동을 진행하였으며, 모금현황은 포항 20만원, 경주 150만원, 안동 20만원, 구미 20만원, 영주 15만원, 영천 20만원, 문경 20만원, 군위 10만원, 의성 30만원, 영덕 20만원, 청도 20만원, 고령 20만원, 칠곡 10만원, 예천 30만원, 봉화 30만원과 도연합회 4백만원, 농어민신문사 1백만원으로 전체 모금액이 935만원이다. 경북도연합회는 이번 모금액을 김천과 상주, 청송, 영양, 성주, 울진에 9월 18일 전달하였다.

성주군연합회는 9월 2일 관내 금수면에 물품을 전달하였고, 9월 5일에는 금수면과 수륜면에서 회원 80여명이 복구활동을 하였다. 칠곡군연합회는 9월 7일 김천 지례면에 1백만원과 트럭을 지원하였고 16명이 복구활동을 하였다. 영주시연합회는 9월 10일 김천으로 의류 700여벌을 전달하였으며, 경산시연합회도 9월 16일 김천으로 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양군연합회는 관내 5개 읍·면에 200만원과 음료수 50box를 전달하였다. 고령군연합회는 9월 6일 고령군청으로 라면 30box와 물 10box를 기탁하였으며, 상주시연합회는 8월 26일 김천에 라면 30box, 장갑 1천켄레를 전달하였고, 관내 피해지역에 장갑 1,600켄레를 지원하였다. 군위군연합회는 9월 13일 성주군으로 쌀 10kg 20포대와 1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6명이 복구활동을 다녀왔다. 포항시연합회는 성주, 김천, 영양, 상주 등에 모두 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천군연합회도 9월 10일 120만원을 MBC와 KBS, 면사무소에 기탁하였다.

경남도

경남도연합회는 시·군연합회와 함께 50만원씩을 각출하여 1천2백만원을 모금했으며, 김해와 함안, 합천에 전달하였다. 합천군연합회는 9월 5일 50여명이 관내 청덕면에서 복구활동을 하였으며, 5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진주시연합회도 9월 3일 진주시청으로 성금 50만원을 기탁하였다.

특광역시

인천광역시연합회는 9월 10, 11일 강릉시에서 40여명이 복구활동을 하였으며, 울산광역시연합회도 울산방송에 성금 10만원을 기탁하였다. **인동연**